주 일 낮 예 배

인도 : 이충원 목사 1부-오전 9:00 / 2부-오전 11:00

※예배선언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	
※송 영	성가대	
※찬 송	찬송가 10장 / 전능왕 오셔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51. 시편 118편	
기 도		2부 : 권일석 집사
헌 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성경봉독	합 2:1~3 (구 1302P)	
교회소식	사회자	
찬 양		전영희 지휘자
설 교	「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	이충원 목사
폐 회 송	찬송가 435장 / 나의 영원하신 기업	
※축 도	이충원 목사	

※표는 일어서서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찬양예배 • 오후 2:00

• 기 도	
• 성 경	
• 말 씀	
• 축 도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30
• 성 경		▣ 셀리더교육	오후 8:50
• 설 교		▣ 중보기도	자정 12:00 ~ 새벽2:00

▣ 셀 모임 현황

셀	리더	모인곳	참석	헌금	성경	성미	전도	합계	누적
여1	김문자					5		5	295
2	이몽옥								670
3	김정자B					5		5	1695
4	박성희				10	10		20	1250
5	안미화								685
6	김정례					5		5	1290
7	김미란				10	20		30	2250
8	이영란				10			10	1355
9	성주애								195
10	박은주					10		10	1460
	이영란					5		5	250
남1	권일석				10			10	1040
2	장순산				20			20	1095

☛ (점수) 셀 예배 참석, 성미는 1명당 각각 5점이며,
성경읽기는 1명당 10점, 전도는 1명당 300점입니다.

▣ 12월 ~ 1월 예배 섬김이

• 12월	안내위원:	정수나, 김문자, 김미란, 최성탁, 윤영희, 김승미
	헌금위원:	이종언, 윤동화
• 1월	안내위원:	정수나, 김문자, 김미란, 심수만, 윤영희, 김승미
	헌금위원:	김영선, 윤영희

▣ 우리가 돕는 선교지

• 정원의(필리핀) • 이태주(카메룬) • 이화섭(인도네시아) • 태국인교회(이용웅)
• 한꿈교회(탈북민) • 총신대학교 • 세계로 교회 • 생명샘교회(군부대)

▣ 향기로운 예물 (농협 170040-51-012041 성은교회)

• 십일조

이충원 정동배 정우준 이예찬 윤지은

• 감사헌금

이충원 김수근 김은희 전영희

• 오병이어헌금

• 건축헌금

정우준 정동배

• 선교헌금

정우준 정동배

▣ 2020년 말씀 기도 일독 셀:_____ 이름:_____

요일 / 성경구절	말씀 기도제목
20일(주일) 역대하 26~29장	
21일(월) 역대하 30~33장	
22일(화) 역대하 34~36장. 에스라 1장	
23일(수) 에스라 2~5장	
24일(목) 에스라 6~9장	
25일(금)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26일(토) 느헤미야 4~7장	

셀 모임 공과 본문말씀 : 누가복음 2장 25~33절

(성탄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심

1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눅 2:25)

2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눅 2:26~27)

3 시므온이 메시야를 보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눅 2:30)

4 성도가 기다려야 할 영혼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눅 2:26)

목회칼럼	「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신은 구글(goog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글에 물어보면 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몇 초 만에 셀 수 없는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구글은 즉시로 대답을 내놓습니다. 폭탄을 만드는 방법, 자살하는 방법 등 답을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기도를 적게 하고 묵상도 얕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그 폭팔적으로 증가한 지식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활용되는 지식입니다. 구글은 정보의 바다이지만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한 문제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악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인간적인 설명도 있었지만 그의 답답한 마음의 갈증은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켐벨 모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와 맞닥뜨렸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 작은 뿔의 참람한 행적을 보고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단 8:13) 번민하며 앓아눕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죄의 세력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울부짖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의심에 빠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망루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설명이나 이론을 주시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천재 수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은총의 날. 1654년 11월 23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확신, 감동, 환희, 평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엔 이 세상 일체의 것이 망각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환희, 환희, 눈물, 눈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 현재 처한 삶의 질문에 힘겨워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은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 12월 합심기도

하나	영혼이 잘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소서 (요삼 1:2)
둘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주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요 12)
셋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소서(렘 36)
넷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모두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수도권지역 고강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현장 인원 20명 이내(영상제작 송출 인원과 참여 신도 포함)로 드리며, 오늘 주일예배는 11시에 실시간 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❷ 성도님들은 유튜브에서 "의정부 성은교회" 를 검색하셔서 오늘 오전 11시에 주일예배 실시간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목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❸ 25일(금) 11시에 성탄절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❹ 성탄절 예배 후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 이번 주 교회청소 - 9셀 ▶ 다음 주 - 10셀

◆ 12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 12/25	성탄절예배 • 예·결산 모임
• 12/27	공동의회 • 주일학교 수료예배
• 12/31	송구영신예배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정우준 노성진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은퇴장로 : 김호준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이희숙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20일 51호

2020년 성은교회 표어
"네 영혼이 잘됨 같이"(요삼 1:2)